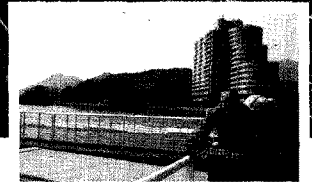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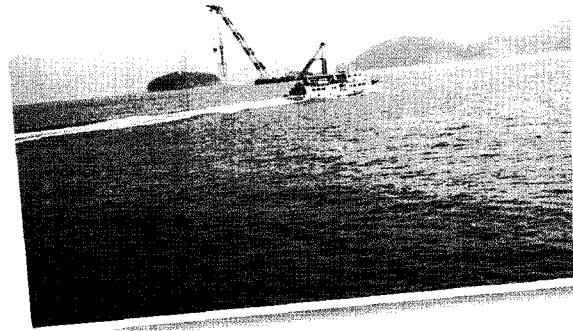
연화도에서 온 편지

좋은 여행이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싸고 맛있는 음식을 발견했을 때처럼, 눈으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풍경이 있는 곳을 찾아 연화도를 향해 떠난다.

공준성



섬 여행의 장점은 배를 타고 가며 주변의 빼어난 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과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여행보다 유난히 크다는 것이다. 이는 복잡한 도시를 떠난다는 해방감이 원인일지도 모르겠다. 표를 끊고 대합실을 이리저리 둘러보니, 희망과 기대를 품고서 멋진 여행을 꿈꾸는 이들이 몇몇 보인다. 나 역시 대합실의 짧은 기다림 속에서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욕망을 가진 것 같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구성되는 것이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지겨운 날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연화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낚시 때문이었다. 첫 조행에서 대박을 낸 후 통영에 살면서도 그동안 낚시를 하지 않은 것이 후회 될 정도였다. 객지 사람들은 통영에서 낚시 한 번 해보길 그렇게 갈망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통영에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돌아보지 못하였으니, 예전의 어리석음을 탓할 뿐이다. 통영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감성돔 낚시터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 섬들과 잘 발달 된 갯바위, 게다가 따뜻한 조류가 만나 천혜의 환경을 자랑한다. 약 192개의 섬들이 통영에 속해 있다. 내가 어릴 적만 해도 통영은 '충무'라 불리었다. 그러다 1995년 통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조선 시대에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이 통영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이름 자체가 통영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충무에서 통영으로 이름이 바뀔 때 한동안 통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통영이라는 이름이 더욱 마음에 든다. 무언가에 적응되면 싫어하던 것이라도 서서히 좋아지게 되는가 보다. 배전이 아주 널찍한 것이 내 맘에 쏙 든다. 다만 오늘은 관광객이 유난히 많아 상당히 소란스럽다. 조용히 사색을 즐기며 가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 배가 11시 출발인데 정확히 시간을 맞춰 출발했다. 조금의 에누리라 있을 줄 알았는데, 선장님도 여행객들의 심정을 알았는지 정시에 시동을 걸었다. 자! 이제 연화도를 향해 출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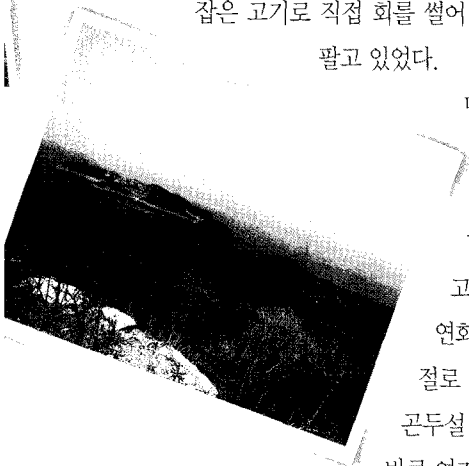
저 멀리 해상크레인이 보이고, 바로 옆 마리아 리조트도 보인다. 그 가운데 갈매기가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다. 난 어렸을 때 세상에서 갈매기가 제일 흔한 새인 줄 알았다. 그 시기엔 제비도 집집이 집을 지었고, 참새들도 전선에 떼로 앉아 있는 모습이 흔했지만, 갈매기 무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특히 멸치잡이 배가 항구에 접안하기라도 하면 개미떼처럼 갈매기가 몰려들어 일대 장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갈매기들은 소란스럽게 ‘끼룩끼룩’ 거리며 멸치떨이 작업에서 튀겨 나오는 멸치를 곡예비행 하듯 넘죽넘죽 받아먹었는데, 갈매기 입장에서 멸치떨이 작업이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셈이다. 이런 갈매기를 바라보다 보면 나 역시 인생의 멸치잡이 배를 찾기 위해 갈매기처럼 높게 비행하며 주위를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1세기에는 다방면에 재주가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적당하지 않은 표현인 듯하다. 요즘은 이른바 10만 시간의 법칙이 유행한다. 한 분야에서 10만 시간 이상 경험을 쌓아야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10만 시간이면 거의 10년인데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 오직 그 일에 10년을 매달려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전문가가 되면 인생도 자리를 잡게 되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내가 과연 갈매기처럼 높이 날기 위해 한 길에만 매진했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여러 길에서 방황하고 주변을 살피기에 급급한 삶을 산 것 같다.

바다를 바라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덧 연화도 선착장에 도착했다. 연화도는 통영 관내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섬이라고 한다. 연화도란 명칭은 ‘연꽃섬’이라는 뜻이다. 조선 시대에 이곳에서 연화도사가 도를 닦다 숨졌는데, 그 시신을 바다에 수장하자 곧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 승화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전설에서 연화도란 지명이 유래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연화도사 전설 이외에 자운선사, 사명대사 등 고승들의 전설과 유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연화도 용머리는 통영 8경 가운데 하나로 관광안내 팸플릿에서 사진만 봤을 뿐 아직 직접 본 적이 없기에 매우 기대된다.

선착장에서 몇 발짝 걸어가니 이런 기계가 먼저 눈에 띈다. 궁금해서 옆에서 작업하는 분께 물어보니 고기사로 만드는 기계라고 한다. 냉동보관 된 전갱이나 고등어 새끼 같은 잡어를 이 기계로 갈아 사료로 쓴다고 한다. 이곳에선 별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고 생사료를 만들어 먹고 있다.

갈아 만든 배가 아니라 갈아 만든 전갱이인 셈이다. 동네 갈매기들이 마치 잔칫날이라도 되는지 수십 마리가 허공을 배회하며 조각난 전갱이에게 달려든다. 작업하던 아저씨가 귀찮은 듯 고함을 지르며 갈매기를 쫓아낸다. 갈매기에 대해 평소 멋있는 새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선 단지 귀찮은 존재일 뿐이다. 연화도 앞바다는 유속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 때문에 멍게나 굴 양식은 하기가 어려워, 우럭 양식을 한다고 한다. 우럭은 볼락과 어류로 매운탕이나 회로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유속이 빠른 탓으로 이곳의 우럭은 힘도 좋고 건강하며 맛 또한 일품이라 한다. 아저씨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럭양식지라며 자량이 대단하다. 난 다양한 생선을 즐기는 편인데, 생선매운탕은 우럭을 넣고 끓인 것을 매우 좋아한다. 기름기가 적당히 있는 생선이라 매운탕을 끓이면 입에 착하고 붙는 깊은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다. 마을 어귀에 보이는 컨테이너 냉동 창고는 모두 물고기 사료로 가득 차 있다. 통영 어촌마을 여기저기에서 이런 창고

를 보고 잡은 물고기를 냉동 보관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서 물고기사료 창고임을 알았다. 마을 어귀는 평일인데도 상당히 분주하다. 원래 작은 섬에 오면 조용한 분위기인데 오늘따라 관광객들이 많아서일까. 어부들은 잡은 고기로 직접 회를 썰어 손님들을 대접하고, 할머니는 인근에서 채취한 미역과 다시마, 말린 새우 등을 팔고 있었다.



마을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본 뒤, 등산객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뒷동산 정도로 여기고 올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든다. 이마에선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한다. 연화도 정상에 오르니 마치 가슴속에서 폭죽을 터트린 듯한 느낌이다. 땀방울이 순식간에 말라버린다. 뭔가 꼭 막힌 것이 갑자기 '펑' 하고 뚫리는 느낌이다. 조약한 사진기술로 이런 풍경을 어쭙잡게 담아낸다는 것은 연화도에 대한 모독이 될 것 같았다. 이 멋진 풍경을 눈으로 실컷 먹어보자. 배불리 절로 흥이 나고, 노래가 나오고, 시상이 떠오를 때까지 맘껏 바라다보자. 머리털이 곤두설 만큼 전율을 느끼고, 눈물이 나올 만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도록 노력해보자. 바로 여기 연화도 정상에서...

● 연화도 전설

조선 시대 조정의 역불정책으로 사명대사는 남해도로 피신하여 보리암에서 기도하던 중이었다. 그때 사명대사를 찾아 전국을 헤매던 세 비구니(보운 : 사명대사의 여동생 임채운, 보월 : 사명당의 처 김보구, 보련 : 사명당의 애인 황현옥)와 상봉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상봉을 불가에서 이른 인연이라 생각하여, 함께 연화도로 옮겨와 수도하였으며, 현 깃대봉(연화봉) 토굴에서 수도하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 세 비구니를 자운선사라 한다. 이들은 뒷날 임진란이 발발할 것을 예견하고, 이순신 장군을 만나 거북선 건조법, 해상지리법, 천풍기상법 등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인은 이곳에서 기도하다 속세를 떠날 때 앞바다에 수장해 달라고 유언하였는데, 수장한 그 자리에서는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났다 하여 연화도란 이름이 생겨났다. 그때 사명당과 세 여승이 연화도 숲길을 거닐며 읊조린 시를 소개해본다.

보운의 시

창해의 한 날 조일
아득한 이 내 몸이
삼세인연을
믿을 수 있으랴만
부처 지체는 반석이
그 옛일을 말하나니
보운, 보련이 어찌 남이리오.

보련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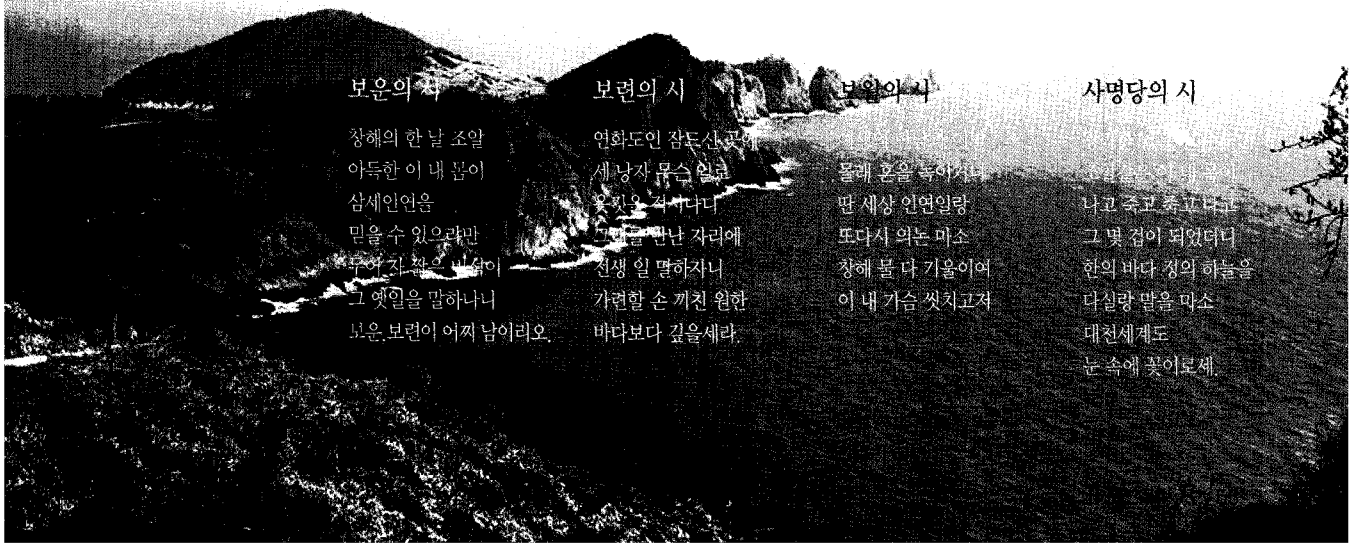
연화도인 잠도산 꼭대
세 낭자 무슨 일로
웃짓을 격어다
그대를 만난 자리에
전생 일 말하자니
가련할 손 끼친 원한
바다보다 깊을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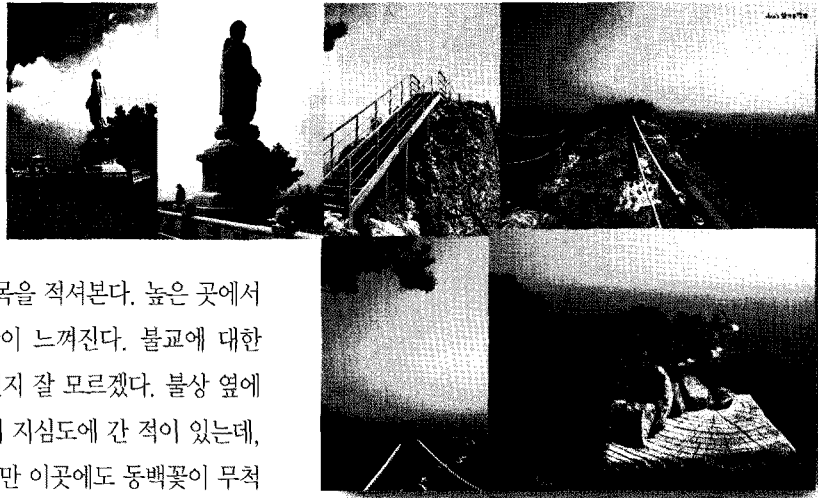
보월의 시


물래 온을 득어서니
땀 세상 인연일랑
또다시 의논 마소
창해 불다 기울이어
이 내 가슴 씻치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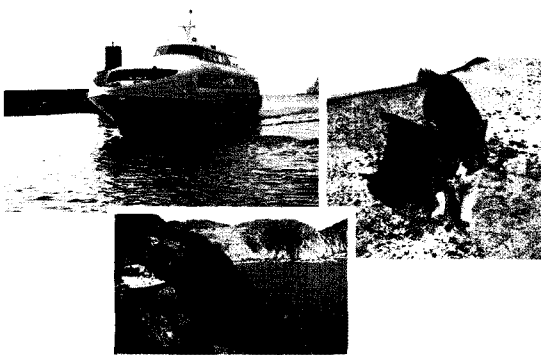
사명당의 시

수월을 손에 이끌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그 몇 겁이 되었더니
한의 바다 정의 하늘을
다실랑 말을 마소
대천세계도
눈 속에 꽃이로세.





불교의 전설이 깃든 곳답게 여러 곳에 암자가 자리하고 있다. 한 암자에서 마른 목을 적셔본다. 높은 곳에서 굽어보는 불상을 보면 왠지 모를 엄숙함이 느껴진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미천하여 불상이 누굴 표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불상 옆에 피어 있는 동백꽃이 참 곱다. 얼마 전 거제 지심도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의 동백나무 숲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곳에도 동백꽃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피어 있다. 바닷가에선 동백꽃이 유난히 잘 큰다고 한다. 원래 동백나무는 거목에 속하는데 바닷바람을 맞지 않으면 나무가 전부 작아진다. 그리고 동백나무는 특이하게 벌이나 나비가 꽃가루받이해 주는 게 아니고 동박새가 해 준다. 동백꽃 개화시기가 보통 3월인데 이 시기엔 곤충이 활동하기에 다소 추우므로 동박새라는 작고 귀여운 녀석이 꽃을 수분해 준다고 한다. 동백나무 숲에 가면 동박새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이제 용머리가 바로 앞에 있다. 여기까지 오는 길만 해도 상당한 거리다. 2시간 30분 정도 걸은 거 같다. 나무 가동에 용머리 모양을 흉내 내어 조약돌을 쌓아보았다.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수만 년 자연의 힘이 이루어낸 풍경을 따라잡기에는 요원할 것이다. 내려오는 길에 보덕암이라는 암자가 보인다. 이 암자는 마을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다 내려왔다는 생각에 슬슬 다리에 힘이 풀린다. 거의 4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산길을 걸었더니 무척 힘이 든다. 다음에 오게 되면 반드시 도시락과 물을 챙겨와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다시 마을로 내려와 지나가는 고양이들에게 손짓했다. 섬에 사는 고양이들은 대부분 사람에게 살갑게 군다. 도시에 사는 고양이와 달리 사람이 부르면 곧잘 다가온다. 어민들이 남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던져줘선지, 이곳의 고양이들은 사람 말을 잘 듣는다. 손짓하면 알아서 포즈도 잡아준다. 다시 선착장에서 표를 끊고 통영으로 돌아간다. 가는 길은 배 시간이 안 맞아 상그리라 호를 타고 가기로 했다. 즐거운 눈의 만찬을 즐기고 돌아오는 길은 나른한 오후의 햇살처럼 아늑하다. 유유히 혼자 걸어가는 길과 아득히 보이는 풍경, 곳곳에 보이는 근엄한 불상, 높은 절벽 등은 각각 느낌이 있다. 절벽 앞에 섰을 때 어떤 이는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를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인생에서 절벽을 만났을 때 고난으로 여길 것인가? 자유로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 문제의 답을 연화도를 다녀옴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천 길 낭떠러지를 보고서도 분명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연화도 운항시간표

행차	통영출항	연화도착	연화도출항	통영출항	비고
1	06:50	07:40	08:10	08:45	육지(카페리)
2	09:30	10:05	10:30	10:45	상글리라(괘속)
3	11:00	11:55	13:00	13:20	육지(카페리)
4	13:00	13:35	15:30	15:45	상글리라(괘속)
5	15:00	15:55	16:30	16:50	육지(카페리)

● 연화도 용머리 횡집민박

연락처 643-6915 주인장휴대폰 010-4666-6915
 숙박료 평일 3만원, 주말 5만원, 식사 회정식 10000~15000원